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2014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올해 나라살림은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 하도록
'해야할 일'을 다하면서도 나라살림은 알뜰하게
꾸려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문의 044)215-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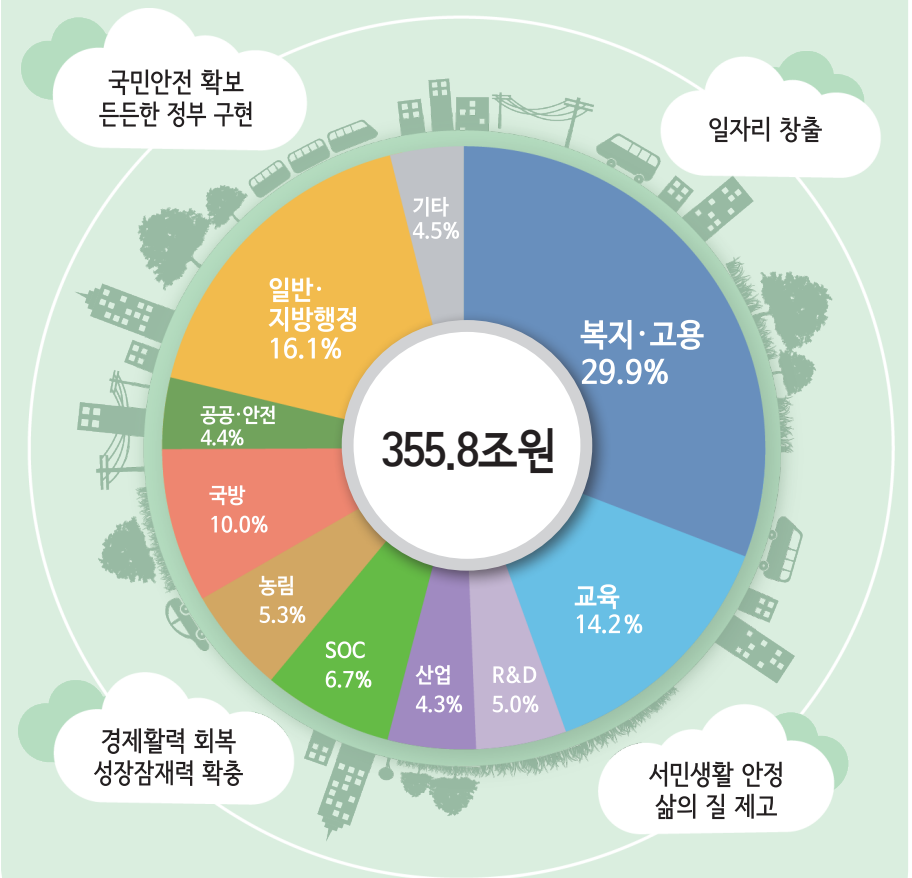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복지 수요별 달라진 서민·중산층 혜택

		2013년	2014년	비고
보육·양육	접종비 본인부담	연 35만원 (0세 기준)	본인부담금 폐지 (폐렴구균 추가)	연 △35만원
	보육료		연 1인당 264만~906만원	지자체 부담 완화로 안정적 무상보육 기반구축
	양육수당		연 1인당 120만~240만원	
대학 교육비	셋째아이 등록금	-	연 450만원	1학년부부터 시행
	대학생 장학금	연 67.5만~450만원	연 67.5만~450만원	연 +22.5만~18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의료비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연 94만원	본인부담 연 최대 34만원 * '16년 제도개선 완료시 기준	연 △60만원 (진료비 경감)
	임플란트	1개당 150만~300만원 부담 * 관행수가 예시	1개당 75만~150만원 부담	개당△75만~△150만원 (75세 이상)
	본인부담 상한제	200만~300만원 부담	120만~250만원 부담	연 △50만~△80만원 (연소득 3,800만원 이하)
주거 지원	주택 바우처	연 96만원 (주거급여)	연 130만원 (주택바우처)	연 +34만원 ('14년 10월 시행)
소득 지원	사병보급	연 140만원	연 162만원	연 +22만원(상병기준)
	기초연금	연 1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연 최대 +120만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장애인 연금	연 120만원	연 240만원	연 +120만원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2014년 나라살림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기가 겁이 나요.”

육아부담,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 ❖ 폐렴구균을 포함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폐렴구균은 '14년 하반기)
- ❖ 보육료·양육수당의 국가부담액을 늘려, 모든 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 연간 1인당 보육료 264만~906만원, 양육수당 120만~240만원 지원
- ❖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여개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소/대기업 지원금 단가 : ('13)월 40만원/월 20만원 → ('14)월 60만원/월 30만원
- ❖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14년 하반기)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작은 일자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일할 열정만 있다면 국가가 힘을 실어 드립니다.



- ❖ 고교·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이수하면 학력인증이 되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1,000여개 기업에 도입합니다.
- ❖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스펙을 초월하여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멘토의 지도를 연결해 드립니다.
 -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500명), 역량개발 지원금 지급(월 20만~30만원)
- ❖ 해외진출의 꿈을 꾸는 청년에게는 멘토링과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60여개로 확대합니다.
 -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 법률,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
-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소통공간, 3개소)과 무한상상실(실습공간, 40개소)을 설치합니다.
- ❖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66.1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합니다.

“등록금 대려다 보니, 허리 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 국가장학금을 소득 2분위부터 6분위까지 연 22.5만~180만원 올렸습니다.
-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을 전액(45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만 20세·소득 8분위 이하)
 - 연차적 지원대상 확대: ('14) 1학년 → ('15) 1~2학년 → ('16) 1~3학년 → ('17) 1~4학년
- ❖ 군복무중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 ❖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1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나이 들면, 아픈 데는 많은데 돈 없어 걱정이지요.”

올해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14년 7월부터)
- ❖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14년 하반기)
 - ('14) 75세 이상 → ('15) 70세 이상 → ('16) 65세 이상으로 적용 확대
-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16년 제도개선 완료시 진료비부담 연 60만원 경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어르신들께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14년 7월부터)
- ❖ 20만명의 독거어르신들께 ‘안부 확인,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 국가재정으로 33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듭니다.
 -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3만개 신설하여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기회 확대
- ❖ 전국 6만 3천여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전·월세 뛰는데, 잠자리가 불안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 약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14년 10월부터)
- ❖ 공공임대주택 9만호를 준공하여 공급합니다.
-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8~3.6%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잘 살고 싶지만,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취약계층에 희망사다리를 놓아드립니다.

-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을 83만 → 약 110만 가구로 확대합니다.('14년 10월부터)
- ❖ 장애인 연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14년 7월부터)
- ❖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연 480시간까지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4만명으로 확대합니다.
- ❖ 차상위 계층도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복지 지원을 늘립니다.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민생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들에게 활기를 주세요.”

활기찬 서민경제를 지원합니다.

- ❖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융자·보증·보험 등) 95조원을 공급합니다.
- ❖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듭니다.
- ❖ 골목슈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새단장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7천억원 발행합니다.
- ❖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90만원 지급하고, 겨울철 논에 청보리·호밀 등을 이모작할 때에도 1ha당 연 40만원의 밭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제주본도 제외)의 어업인 가구당 연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삶의 질

“각박한 세상이지만, 마음만은 넉넉해졌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 봉급(15%)·급식비(6.5%) 인상, 체육·문화 센터 269개소 조기 완공 및 1,048세대 관사 신축을 추진합니다.
- ❖ 기초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연습공간을 만들고 공연비용(대관, 장비, 홍보비 등)의 20%를 지원하여 창작 여건을 개선합니다.
- ❖ 국민 누구나 인문학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공공 인문학 강좌(길 위의 인문학)를 늘리고 우수 도서 보급도 확대합니다.
-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0만원)를 발급합니다.
- ❖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를 세웁니다.

